

BTS·BLACKPINK·Baby Shark

BTS, K팝 신기록 제조기 등 전세계는 '한류 음악 3B 시대'

'유튜브 퀸' 블랙핑크, 명실상부 K팝 간판 걸그룹 세계 유튜브 조회 수 1위, 아기상어(Baby Shark)

BTS, BLACKPINK, Baby Shark. 바야흐로 한류 음악계의 '3B 시대'다. 한국 가수 첫 '빌보드 200' '핫100' 1위이자 '그래미 어워즈 첫 후보'인 '방탄소년단'(BTS), '유튜브 퀸'인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 세계 유튜브 조회 수 1위인 '핑크퐁 아기상어'(Baby Shark)가 주인공이다. 방탄소년단은 하루가 멀다하고 K팝 관련 기록을 깨며 경신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 대중음악계에 커다란 장벽으로 여겨지던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를 차지하더니, 철옹성 같던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 지명됐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이날 발표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후보에 '다이아마이트'로 지명됐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은 '그래미 어워즈'에서 흔히 말하는 4대 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그리고 '올해의 신인'이 주요 4개 상이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역시 비중이 작지 않으나, 방탄소년단의 성과에 비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레코드'나 '올해의 노래' 후보로 지명

됐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발매 첫 주 모두 2위에 올랐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아티스트 중 캐나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5900만명)에 이어 2위(25일 현재 5350만).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가 K팝 걸그룹 단일곡으로는 처음으로 스포티파이에서 4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는 등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이 곳에서 'K팝 걸그룹 최초·최다·최단'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에는 미국 유력 경제전문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 1위로 선정됐다.

한국을 비롯 아시아 출신 중 이 차트 정상에 오른 뮤지션은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한국의 유아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의 핑크퐁 아기 상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RIAA)로부터 다이아몬드 및 11개밀리 플래티넘 인증을 받으며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특히 핑크퐁아기상어에게 부여된 다이아몬드 자격은 RIAA 인증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RIAA의 디지털 싱글 인증 기준은 음원 판매량에 따라 골드(50만유닛), 플래티넘(100만 유닛), 멀티 플래티넘(200만 유닛), 다이아몬드(1000만 유닛)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핑크퐁아기상어는 RIAA 기준 1100만건 이상의 판매량 입증은 물론, 키즈송으로서는 세계 최초 다이아몬드 인증이라는 글로벌 신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핑크퐁 아기상어체조'(Baby Shark Dance) 영상은 이날 초 70여뷰를 넘기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에 등극했다.

지난 2016년 6월 유튜브 핑크퐁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는 2015년 11월에 업로드된 '핑크퐁 아기상어'에 올동이 가미된 버전이다.

특히 이번 1위는 2017년 8월부터 꾸준히 정상의 자리를 지켜 온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Despacito)'를 제치고 세운 기록이다.

키즈송으로서는 세계 최초 1위 등극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폰시는 지난 1월 '아기상어' 피쳐링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는 유튜브 조회수 72억뷰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승규 스마트스터디 부사장은 "최근의 성과는 음악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얻어진 결과"라면서 "K팝 그룹들의 세계적인 활약과 더불어 스마트스터디만의 고유한 영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3B의 활약은 지난 7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



향분석보고서'에서 객관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약 10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비중에서 2위(7.9%)를 차지한 캐릭터 산업의 경우 북미에서 인기를 끈 '아기상어'에 힘입어 10.7%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8억 2493만달러)했다.

음악산업도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대표 K팝 아이돌의 선전으로 전년 대비 13.4%의 수출 증가세(6억 3965만 달러)가 지속됐다 고 언급했다.

3B의 공통점은 '글로벌한 공감대' 형성이다. 방탄소년단은 시대에 맞는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던졌다.

블랙핑크는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로 등극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따라하기 쉬운 안무와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로 세계 곳곳의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있다.

음악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각국의 문화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세련될 뿐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많은 K-뮤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서 "코로나19 시국에 온라인 이용이 많아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강호·김민희, '뉴욕타임스 21세기 최고의 배우 25인' 선정

편집자 추천...20년간 가장 위대한 연기 선보인 배우

배우 송강호와 김민희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배우 25인에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편집자의 추천(Editor's Picks)'으로 지난 20년간 가장 위대한 연기를 선보인 '21세기 최고의 배우 25인'을 선정했다.

여기에 한국 배우로는 송강호와 김민희가 각각 6번째와 16번째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송강호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와 네 작품을 함께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로 송강호를 소개했다.

봉 감독은 인터뷰에서 "송강호를 처음 본 것은 이창동 감독의 장편 데뷔작 '초록 물고기'였다. 그는 시골 건달 역할을 연기했는데 연기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감독들 사이에

실제 건달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중에 그가 오랫동안 대학로 연극계에서 활동해온 배우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의 추억"에서 시골 형사 역을 맡았다. 송강호는 그 역할을 위해 태어났고 그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는 늘 성장하고, 더 많은 공간을 칠할 수 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여전히 보고 싶다. 내게 그는 다이아몬드 광산과 같다. 그와 함께 4편의 영화를 촬영했던 40편이든 간에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강호는 매 순간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 어렵고 힘든 장면이어도 자연스럽게 만들고 즉흥적으로 보인다"며 "주인공으로서 그의 독특함은 평범함에서 비롯된다. 평범함에서 시작해 독특하고 흥내낼 수 없는 목소리로 끌어올린다. 송강호와 그의

캐릭터는 특별하다"고 전했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통해 소개됐다.

뉴욕타임스는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절묘하게 뉘앙스를 살린 연기로 영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후 홍 감독의 작품 대부분의 주인공을 맡아 왔다"며 "홍 감독은 장난기 많고 인간의 불안정함에 민감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김민희의 명쾌한 표현력이 영화를 아름답게 한다"고 밝혔다.

이율러 "그녀는 '아가씨'에서 크고 작아지고 괴물이 됐다가 겁쟁이가 되고, 캐릭터의 감정을 번갈아 가며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뉴욕타임스는 맨렌 워싱턴, 이자벨 위페르, 다니엘 데이 루이스, 키아누 리브스, 니콜 키드먼, 줄리엔 무어, 호아킨 피닉스, 틸다 스유티 등을 꼽았다.

뉴시스

JYP 걸그룹 '니쥬', 정식데뷔 전 日차트 예열

걸그룹 최초 오리콘 스트리밍 수 1억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걸그룹 '니쥬(NiziU)'가 정식 데뷔 전 차트를 예열하고 있다.

26일 JYP에 따르면, 니쥬가 전날 0시 프로모션 하나로 미리 공개한 신곡 '스텝 앤드 어 스텝(Step and a step)'이 일본 라인 뮤직 실시간 톱 100 차트 1위에 진입했다.

같은 공개된 뮤직비디오 역시 약 23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11시42분 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를 찍었다.

앞서 니쥬의 프리 데뷔곡 '메이크 유 해피(Make you happy)' 뮤직비디오는 공개 두 달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확인했다.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메이크 유 해피'는 걸그룹 최초 오리콘 스트리밍 수 1억 등 니쥬에게 각종 기록을 안겨줬다.

동시에 니쥬는 음원 공개 같은 날 방송된 NTV '베스트 아티스트 2020'에 출연, '스텝 앤드 어 스텝'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2001년부터 매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NTV의 연말 음악 특집 방송이다.

한편, 니쥬는 오는 12월2일 일본에서 싱글 '스텝 앤드 어 스텝'을 발매하고 정식 데뷔한다.



드 어 스텝'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2001년부터 매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NTV의 연말 음악 특집 방송이다.

한편, 니쥬는 오는 12월2일 일본에서 싱글 '스텝 앤드 어 스텝'을 발매하고 정식 데뷔한다.

'해적2' 측 "스태프, 촬영 이후 코로나19 확진...배우 접촉 안해"

"촬영, 계속 진행될 예정"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의 스태프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촬영장에 나온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영화 촬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해적: 도깨비 깃발'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뉴시스에 "특수효과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역할조사 결과 '해적2' 촬영장에 나온 이후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율러 "배우나 제작진들과는 접촉하지 않았고 '해적2' 촬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수효과팀 다른 팀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적: 도깨비 깃발'은 조선의 건국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려 왕실의 마지막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바다로 모여든 이들의 짜릿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지난 2014년 여름 개봉해 866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 이어 '해적'의 두 번째 이야기다. 배우 강하늘과 한



호주, 이광수, 권상우, 채수빈, 엑소(EXO) 세훈, 김성오, 박지환 등이 출연하며 지난 7월부터 촬영에 돌입했다. 뉴시스

달샤벳 출신 수빈, '치료 마치고 활동 재개'

'미쓰백' 복귀

그들 '달샤벳' 출신 수빈이 교통사고 치료를 모두 마치고 활동을 재개한다.

수빈의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26일 "수빈이 이날 '미쓰백' 촬영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며 "무사히 치료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집중해 많은 분들

이 걱정해주신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앞서 수빈은 지난 17일 오후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다행히 큰 외상은 없지만 의사 권고에 따라 일주일간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초신성' 도박 수사 확대...연예인·조폭 등 적발

해에서 불법 도박을 한 한류아이돌 '초신성' 멤버 2명이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추가로 연예인과 조직폭력배 등 100여명을 적발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혐의로 초신성 멤버들을 포함해 총 100여 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도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이돌 그룹 초신성 멤버 윤학(본명 정운학·36)과 성제(본명 김성제·34)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6~2018년 필리핀의 한 카

지노에 들러 판돈이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명은 필리핀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니며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학, 성제가 연루된 해외불법도박 수사를 확대해 또 다른 연예인과 조직폭력배 등 100명여 명을 적발했다.